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7

주 제:	“ 좀 쉬어라. ”	“연중 제 16 주일 ”	2009 년 7 월 19 일
복음 묵상:	[마르 6,30-34]	[예레 23,1-6]	[에페 2,13-18]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파전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휴식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휴식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고무줄로 표현합니다. 고무줄을 오랜 시간 길게 당겨놓으면 얼마가지 않아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완시켜 놓으면 쉽게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느슨하게 하는 것을 반복할 때 고무줄의 수명도 늘어나고 효과도 커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길게 당겨놓는 긴장과 일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완되는 휴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되 어제는 놀고, 오늘은 쉬고 하는 식의 놀음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휴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과 일터를 하느님께 맡겨놓고 떠나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겨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냥 단순히 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마음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따로 외딴 곳으로"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시끄러운 곳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시끄럽고 정신 사남게 쉬는 것은 진정한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휴식은 하느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는 휴식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까지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너무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휴가를 다녀왔지만 오히려 그 휴가가 힘들어서 고생하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휴식의 말뜻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는 것입니다. 휴식도 적당히 쉼으로 해서 새롭게 삶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안동 차호철 신부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최주남 에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모친 구순 잔치 참석차 Pebble Beach 로 떠나셨습니다. 구순을 맞으시는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모든 단원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지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예정.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사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예수께서 배에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

1분 명상

♡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

- 최인호의 《산중일기》 중에서 -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참사랑이라면 눈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눈에서 멀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참우정이 아니다.
 참우정이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최인호의 《산중일기》 중에서 -

* 사랑은
 '눈을 뜨는' 훈련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사랑도, 우정도 깊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눈이 더 활짝 떠져서 더 가까이
 더 잘 보이는 관계가 진정한 참사랑,
 참우정의 모습입니다.

낙서장

언젠가 늦은 밤 혼자서 공원에 나가 청승맞게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넓은 우주를 생각해 본적이 있다. 이 우주안에 나도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문득 내 자신이 너무도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마치 우리가 미생물을 대하듯 나의 가치는 우주에 비하여 티끌도 되지 못하거늘 나의 고뇌 또한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고.....가끔 느껴지는 행복한 마음도 모두 부질없는 허망한 꿈?